

프랑스 및 유럽연합 조류독감 확산



올해 프랑스의 조류독감은 12월 1일, 프랑스 남부 타른(Tarn) 주에 위치한 알마이락(Almayrac) 시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로 프랑스의 조류독감 감염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2월 10일에는 같은 주의 조류독감 농가가 4곳 추가되면서 조류독감 사례가 총 7건으로 증가하였고, 12월 16일 27개 농가, 12월 20일 32개 농가에 이어 12월 26일 총 52개 농가로 조류독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제르(Gers) 주, 타르(Tarn) 주, 로트에가론(Lot-et-Garonne) 주, 피레네아틀라티크(Pyrenees-Atlantiques) 주, 랑드(Landes) 주, 오프피레네(Hautes-Pyrenees) 주, 아베롱(Aveyron) 주에 위치한 농가로 프랑스 동남부 지역의 7개 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철새로 시작된 조류독감은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강타하여, 현재 다음 유럽 국가 13개국의 총 406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 프랑스, 헝가리,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시사점

12월10일부터 추가된 조류독감 농가는 첫 조류독감 사례 발표 시 조류독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으므로 프랑스 정부는 현재 조류독감 위험성을 '높음'으로 지정하여 조류독감 확산 방지 조치를 강화하였으나 조류독감 확산을 막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금류 간으로 만드는 푸아그라의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 해당 업계가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출처 : Le Monde